

처 벌 불 원 서

■ 사건번호 : 강릉지원 2023가합30051

■ 작 성 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아들, 며느리

■ 작성 내용

▶ 2022년 12월 6일 15:50분경 어머니인 최애숙씨와 저희 아들 이도현군이 학원이 끝난 후 함께 차량을 탑승 후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사고로 도현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음, 액체분출, 흰연기, 진한 타이어 자국 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모든 급발진 요소들이 이번 사고에서 분명히 확인되며, 인체공학 분석결과와 경험칙상 어머니가 30초 동안 페달 오조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급발진의 정황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아 모닝 충돌 전 차량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는 이질적이고 큰 굉음의 소리와 배기통에서의 다량의 액체 분출이 사고 직전에 있었습니다.
- 영상 속에서 기아 모닝 차량과 충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차량 결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EDR 상 5초간 100% 가속 페달변위량은 5초 동안 차량 속도 변화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어머니의 평소 운전하시는 모습과 사고 발생 장소와의 익숙함, 그리고 어머니의 차분한 성격에 비추어 페달 오조작의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의 명시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차량 결함이 이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이번 사고로 저희 보석 같고 꿈 많던 너무나 사랑하는 12살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억울함과 아픔의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는 차량 전문가가 아닌데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무섭습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 12살, 천사 같았던 우리 도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 아빠도 불러보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반드시 차량결함>임을 밝혀 <제조사 책임>을 묻고 소비자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 가족이 변호사가 꿈이었던 도현이를 그리고 도현이가 이루고 싶었던 '정의로운 나라' 를 이루며 도현이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귀서가 어머니의 운전 과실에 의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현이의 부모인 저희들은 어머니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국과수 EDR의 종합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정황증거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이번 사고를 조사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명백한 차량결함>임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무죄를 밝혀내야 하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사님과 수사관님의 철저한 조사와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이 반드시 <차량결함의 인정과 운전자셨던 어머니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03. 20.

작 성 인 : 이상훈 (인)